

● 일본의 양계소식



1. 더위로 닭 14만수 폐사

맹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뿐만이 아닌 가축의 열사병에 의한 폐사가 심각해지고 있다. 육계의 출하가 가장 많은 가고시마현(鹿兒島縣)에서는 8만4천수가 죽고, 각지의 동물병원에는 죽어가는 애완동물도 있다. 후쿠오카관구 기상대는 앞으로 1개월 간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관계자에게는 열사병 피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규슈(九州)지방에서 집계한 7월 말까지의 가축피해는 더위에 가장 약한 육계가 가고시마현(鹿兒島縣)에서 약 8만 4천수, 미야자키현(宮崎縣)에서 약 4만수, 사가현(佐賀縣)에서 약 1만 5천수가 열사병에 의한 폐사가 발생하였다. 후쿠오카현(福岡縣)에서는 산란계 약 3천8백수가 폐사되었다. 「산란계는 사료섭취가 떨어지고 계란의 크기도 적어졌다」는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축산과의 보고도 있다. 양계장에서는 계사지붕을 차광막으로 덮거나 대형 선풍기를 돌리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사가현(佐賀縣) 농업협동조합은 작년부터 단열재를 사용한 모델 축사를 건설하여 가축을 사육한 결과 「사료섭취가 좋아 사육성적도 순조롭다」고 전하고 있다.



윤 병 선

한일사료(주) 기술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

2. 초음파분무기를 사용한 무창계사내 분진 억제

계사 내에서 발생하는 호흡가스나 세균 등이 부착된 분진은 가축이나 작업자의 호흡기계통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환기에 의해 계사 밖으로 확산되면 악취 등의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 계사내 분진 억제가 가능하다면 계사환경이 개선되어 닭과 작업자뿐만이 아니라 계사주변의 환경 오염물질의 확산이 억제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초음파분무기를 사용한 분진억제 기술이 일본 축산시험장에서 개발되었다.

핵심기술은 산란계사 내에서 물 중량 2%의 식물성유지가 혼합된 수용액을 사료급여 이전에 1일 1수당 14g(분무기 8대로 25분간 분무)씩 1회 분무하였다. 분무 후에는 약 50% 이상 분진이 감소하였고 유지에 의하여 바닥에 떨어진 분진이 계사 내에서 날아 오르지 않아 분진농도가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초음파분무기의 특징은 분무입자를 3.75 μ m와 7.15 μ m의 2 단계 변화가 가능하며 산란계사에서 자동 급이기를 이용하여 분무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무창계사에서 사육중인 육계의 경우 1일 분진농도를 약 60%(1시간에 10분씩 분무한 경우) 감소시켰다.

이 기술은 분무입자를 변경 할 수 있어 질병예방을 위한 약제살포에도 사용할 수 있다. 살포방법은 반드시 계사의 환기구조나 사양관리에 의하여 변경해야 하며, 계사뿐만이 아닌 돈사 등의 다른 축사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로는 분무기의 설치방법이나 분무방법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개발중인 자동분무 장치를 활용하여 사람을 대신하는 축사내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도 향후 검토할 것이다.

(자료 : 일본J사 제공)

※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031-280-4046)